

3~4학년 여름방학 추천도서

	강철 변신	임순옥 글 ; 이상권 그림	산하
	걱정이다 걱정	박신식 외 글; 강영지 그림	프인돌 어린이
	고래가 삼킨 플라스틱	김남길 글; 마이신 그림	풀과바람
	곤충은 어떻게 집을 지을까?	정부희 글; 옥영관 그림	보리
	공정 : 내가 케이크를 나누다면	소이연 글; 김진화 그림	우리학교

임순옥의 첫 창작집입니다. 여섯 편의 동화가 실려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빛깔의 개성 있고 독특한 작품들이죠. 한 편을 제외하곤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의 동화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 무엇이 있습니다. 어떤 절실한 필연성이 주인공에게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게 하는데, 그가 보여주는 방식은 관습적으로 장르를 구분하고 안주하던 우리 동화에서 보기 힘든 새로운 시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 방법을 알려 주는 안전 동시집이다. 아이들의 생활권인 가정, 학교, 교통, 자연 4가지 상황에 각 14편씩, 총 56편의 동시가 실렸다. 한 편의 동시가 끝날 때마다 그와 관련된 안전 수칙을 별도로 3~7개씩 실었다.

일반적으로 해양 동물을 생각할 때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 연구에서처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행동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하기에 <고래가 삼킨 플라스틱>을 기획, 출간하였다. 우리 모두 함께 공존 공생할 방법을 생각해 보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밀화로 보는 정부희 선생님 곤충 교실 1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을 짓는 곤충들이 나온다. 유리산누에나방 애벌레는 어떻게 집을 지을까? 호리병벌은 어떤 집을 지을까? 왕거위벌레는 무엇으로 집을 지을까? 어떤 도구도 없이, 누구 힘도 안 빌리고 훌륭한 집을 짓는 곤충들이 소개된다.

질문하는 어린이 1권. 어린이 독자들과 함께 ‘공정’의 참된 의미에 대해 하나하나씩 짚어 보고자 기획된 책이다. ‘공정함이란 무엇일까?’처럼 기본적인 질문부터 ‘이긴 사람이 더 많이 갖는 게 왜 문제일까?’처럼 확장된 질문까지, ‘공정’에서 뿔어 나오는 여러 갈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씩 찾아간다.

	<p>꼬르륵 식당</p>	<p>윤숙희 글; 김무연 그림</p>	<p>아이세움</p>
	<p>나 진짜 귀신을 봤어!</p>	<p>이승민 글; 박정섭 그림</p>	<p>풀빛</p>
	<p>나는 강아지 날개</p>	<p>김현희 글; 서영아 그림</p>	<p>위즈덤하우스</p>
	<p>밤의 교실</p>	<p>김규아 글</p>	<p>샘터사</p>
	<p>돌아와, 귀신고래야!</p>	<p>신정민 글; 정지윤 그림</p>	<p>파란자전거</p>

익사이팅박스 64권.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아픔을 말하며,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환상적인 스토리로 풀어낸 책이다. 배가 고프고 마음도 고프, 어딘가 결핍된 세 아이들이 ‘꼬르륵 식당’이라는 마법 같은 공간에서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우고 마음도 채운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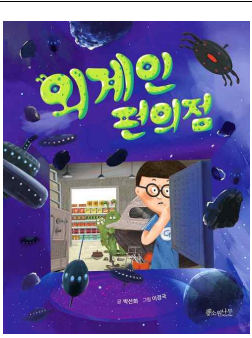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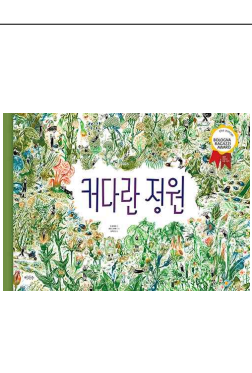

어느 날 송민이는 장난꾸러기에 대한 동화책을 너무 재미있게 읽은 나머지, 자기도 제대로 한번 장난을 쳐 보고 싶어 한다. 그러던 중, 학교에 귀신 이야기가 유행하고, 송민이는 귀신 가면을 만들어선 친구들을 놀라게 한다. 송민이의 귀신 장난으로 귀신 이야기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은 점점 더 커졌고, 학교에선 귀신 목록과 귀신을 퇴치하는 방법이 유행한다.

날개 섬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도레는 천사 조각상에게 날개를 빌린다. 지금 당장 바다를 건너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아무리 연습을 해도 구멍 뚫린 낡은 날개로는 날 수가 없다. 과연 도레는 훨훨 날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늘을 날아서라도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유기견 도레의 가슴 뭉클한 모험이 시작된다.

해가 지고 난 뒤 시작되는 늑대 선생님의 특별한 음악 수업
정우는 수학처럼 정답이 있는 확실한 세계를 좋아한다. 이런 정우에게 답이 없고, 풀어내기 힘든 사건이 벌어진다. 시력이 나빠져 병원을 찾았는데, 어쩌면 영영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 끝없는 밤이 올 수 있다는 얘기에 슬프고 복잡한 마음이 들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는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지만 힘이 되기보다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한때 고래의 바다라 불릴 만큼 고래가 많았던 울산 앞바다의 이야기다. 귀신처럼 출몰하는 거대한 고래라 해서 귀신고래라 불리는 ‘한국계 귀신고래’는 세계적으로 꽤 유명하다. 일제강점기 무차별 포획으로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귀신고래의 일생과 고래잡이 장군의 일생을 교차로 보여주어 역사의 암흑기를 함께 살아온 인간과 고래의 삶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 준다.

	명명! 재판을 시작합니다!	신지영 글; 이경석 그림	지학사아르볼
<p>솔이와 가람이가 강아지 나라에서 겪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법의 필요성과 유용함을 생각해 보는 읽기책이다. 솔이와 가람이는 같은 반이자 법 동아리 친구다. 하지만 정반대인 성격 탓에 자주 다툰다. 보다 못한 선생님은 둘이 화해할 때까지 숙제를 내 줬다. 숙제를 하러 도서관에 간 두 아이는 '강아지 나라의 전설'이라는 이상한 책을 발견하고, 그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p>			
	민요 자매와 문어 래퍼	고정우 글; 김도아 그림	다림
<p>우리 노래로 세상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민요 자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고정욱 작가의 작품이다. 동생 송연이를 통해 장애인을 둔 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아픔 그리고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담하면서도 유쾌하게 그려 내고 있다.</p>			
	브루노와 수소 이야기	로드리고 콘트레라스 라모스 글	지양어린이
<p>우주의 75%를 차지하면서, 지구에 존재하는 것들 중 가장 가벼운 기체인 수소 원자에 대한 이야기다. 수소 코르티네스 베틀이라는 괴상한 이름을 가진 수소 원자의 모험을 통해 '물의 순환'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p>			
	사소한 거미책	김은정 글·그림	한권의책
<p>거미의 생태를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과학적 원리를 찾아 세밀한 그림으로 풀어내고 있다. 어쩌면 조금은 무섭고 징그러운 거미의 생김새가 이제는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친구로 여겨지게 될지 모른다.</p> <p>이 책을 읽고 나면 지식뿐만 아니라 멋진 그림책 한 권을 감상한 듯 즐거움과 감동에 폭 빠져들 것이다.</p>			
	삼국스타실록	서지원 글; 순미 그림	상상의집
<p>삼국 시대에는 개성 만점 여러 나라가 한반도에 함께 있었다. 그리고 각 나라에는 능력 있고 매력 넘치는 스타들이 있었다. <삼국스타실록>에서는 45명의 삼국 스타를 소개한다. 스타는 삼국의 왕, 왕의 친구, 그림 실력이 뛰어난 스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열다섯 살 소년 등 아주 다양하다. 스타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삼국의 탄생부터 삼국 통일, 삼국의 멸망까지 쉽게 배울 수 있다.</p>			

	세상을 움직이는 소년 소녀	이선경 글; 이한울 그림	썬더키즈
	외계인 편의점	박선화 글; 이경국 그림	소원나무
	초원의 명탐정 몽구리	양자현 글; 손지희 그림	천개의바람
	커다란 정원	질 클레망 글; 배앙 그라베 그림	이마주
	나비의 모험 1-2	김보통 글·그림	보림
<p>세상의 다양한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기성세대가 외면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해온 문제들을 끄집어내 변화를 이끈 여섯 명의 어린 영웅들 이야기다. 이 시대의 가장 어둡고 숨겨진 곳, 우리의 시선이 놓칠 수 있는 곳까지 빛을 밝혀 주는 꺼지지 않는 용기와 희망의 불씨가 된 여섯 명의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진다.</p>			
<p>부모님을 잃어버린 혜성과 고향인 나비 행성을 잃어버린 알파와 라우렐이 만나 어떻게 가족이 되어 가는지를 담아낸 작품이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심지어 종족까지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 함께 위험을 극복하면서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모습은 독자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 준다.</p>			
<p>여러 동물이 함께 어울려 사는 즐겁고 평화로운 심바코피 마을. 어느 날, 심바코피 마을에 느닷없는 사건이 일어난다. 바로, 미라클봉봉 도난 사건. 모두가 아끼는 귀중한 열매인 미라클봉봉이 사라지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마을은 아수라장이 된다. 그때, 마을의 명탐정, 몽구리가 사건 해결을 위해 나선다. 몽구리는 빈틈없는 관찰과 논리적인 추리로 미라클봉봉 도둑을 찾아낼 수 있을까? 열매 도난 사건의 범인을 찾아 나선 탐정 몽구스, 몽구리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동화로, 교보문고 동화공모전 수상작이다.</p>			
<p>정원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두 농부들의 일기이자, 자연을 향한 기도이고 찬가이다. 작가이자 정원사이기도 한 두 사람은 땅과 식물을 바라보는 따뜻하고 다정한 시선을 곳곳에 묻어 두었다. 오랜 시간을 정원과 함께 보낸 글 작가는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정원의 열두 달을 펼쳐놓는다. 열매의 풍요로움, 흙속의 비밀, 꽃들의 질서, 곤충과의 공생 등, 날이 가고 달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자연의 모습과 색과 향기에 대해 섬세하고도 아름답게 노래한다.</p>			
<p>고양이가 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길고양이 나비가 인간과 함께 살아가며 겪는 모험을 그린 어린이 창작 만화이다. <아만자>, <DP 개의 날> 등 주목받는 만화가인 김보통의 첫 어린이 창작 만화책이다. 자유분방하고 용감무쌍한 고양이 나비가 민송이와 지완이 가족을 돌보면서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는 것들을 고양이의 시선으로 재미있게 그려 냈다.</p>			